

##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음.
- (양곡법 개정안) 쌀 등 양곡의 선제적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과잉생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됨.
  -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적으로 쌀 적정 재배면적 및 논타작물 전환 목표를 체계적으로 계획하도록 함.
  - 과잉생산이 불가피하거나 가격 하락이 발생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이 미곡(쌀) 매입 등을 포함한 수급안정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
- (농안법 개정안) 주요 농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공급 체계 구축과 가격 급락 시 생산자 보호를 위해 마련됨.
  - 정부 및 지자체가 농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부터 출하까지 선제적 수급 관리 체계를 법적으로 구축하도록 함.
  - 수급 불안 시 정부의 농산물 수매 등 사후조치를 강화하고, 해당 연도의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를 신설함.

### ■ '양곡법'과 '농안법' 주요 개정 내용 ■

법안	주요 내용	현행	개정 후
양곡법	양곡수급계획*	신설 조항	·농식품부 장관은 미곡과 기타 양곡에 대한 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함.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조항	·생산자단체 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 ·양곡 수급 계획 수립 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양곡수급안정대책	신설 조항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 이상의 과잉생산 혹은 가격 하락이 발생한 경우, 쌀 수매 등의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의무화
농안법	농산물수급계획	신설 조항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신설 조항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법제화 ·주요 농산물의 생산·유통 조절 대책을 심의하도록 함.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신설 조항	·일정 기간(해당년도)의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신설 조항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 선정 및 차액의 지급 비율 심의

\*개정 전에는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양곡수급계획'이라 불렸음.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곡수급계획'을 별도로 신설하고, 기존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은 '정부양곡수급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정안 제6조에 유지함.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5.08.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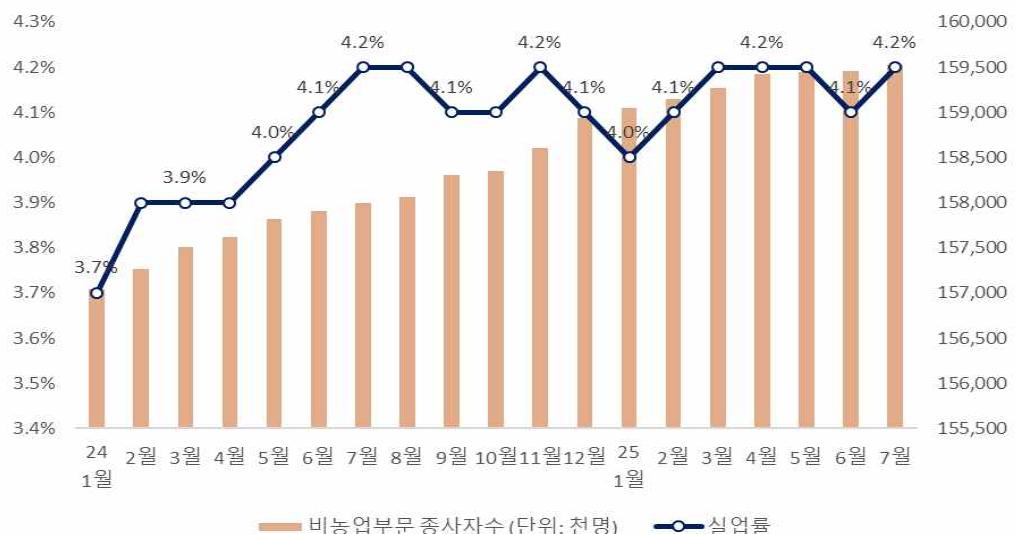
## 세계 경제 동향

### ● 미국, 7월 실업률 4.2% | 2025-08-01 미국 노동통계국

- 2025년 8월 1일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은 7월 고용 동향(Employment Situation)을 발표하며, 7월 실업률이 4.2%로 전월 대비 0.1%p 상승하였다고 밝힘.
  - 지난 7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종사자 수는 전월 대비 73,000명 증가하는데 그치며, 지난 4월 이후 정체 상태를 지속함.
  - 경제활동 참가율은 62.2%로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0.5%p 하락함. 고용률은 59.6%로 전년 동월 대비 0.4%p 하락함.
- 보건의료 부문의 7월 고용은 전월 대비 55,000명 증가했으며, 이는 이전 12개월 월평균 증가분(42,000명)을 상회하는 수준임.
-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7월 고용은 전월 대비 18,000명 증가하였으며, 개인·가족서비스 부문 또한 전월 대비 21,000명 증가함.
- 7월 연방 정부 고용은 12,000명 감소하였으며, 광업, 제조업, 운수업, 도·소매업 등 나머지 업종은 거의 변화가 없었음.
- 민간 비농업 부문 전체 근로자의 7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3%(0.12달러) 올라 36.44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3.9% 상승한 수치임.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9월에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전까지 미국 고용 시장 둔화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것인지 면밀히 관찰하고 9월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임.

### ■ 2024~2025년 7월 미국 비농업 부문 종사자 수 및 실업률 ■





## 국내 경제 동향

### ○ 7월 소비자물가 2.1% 상승 | 2025-08-05 통계청; 기획재정부

- 2025년 8월 5일 통계청은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고 발표함.
  - 석유류 가격 하락, 가공식품 오름세 둔화 등으로 전월(2.2%) 대비 소폭 둔화(주간브리프 Vol. 26)
  -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하며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하였으며, 전월 대비 변동 없음.
  -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5% 하락하였으나, 전월 대비 1.2%p 상승한 수준임.
- 품목 성질별로 전기·가스·수도(2.7%), 개인서비스(3.1%)의 물가상승률\*이 높았고, 공공서비스(1.4%), 공업 제품(1.6%)의 물가상승률\*은 비교적 낮았음.
  -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 (농축수산물) 농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1% 하락함. 반면, 축산물과 수산물 물가는 각각 3.5%, 7.3% 상승하며 전체 농축수산물(2.1%)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이 됨.
    - (공업제품) 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0% 하락함.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하며, 지난 4월 4.1%, 5월 4.1%, 6월 4.6%에 이어 4개월 연속 4%대를 기록함.
    - (개인서비스) 외식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하였으며,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함.
  - 정부는 가상 여건, 국제유가 변동성 등의 물가 변동 요인에 적극 대응하여 체감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발표함.
    -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주요 품목 수급 상황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 대응 예정

### ■ 2024~2025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





## 세계 농업·농정 동향

### ● OECD-FAO 농업전망 2025-2034 발표 | 2025-07-15 OECD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OECD-FAO 농업전망 2025-2034」를 공동으로 발간함.
  - OECD-FAO 농업전망은 향후 10년간 세계 농업·식량시장에 대한 수급 및 가격, 기후·환경 변화 등을 통합 분석한 대표적 국제 보고서로, 각국의 식량안보 및 농업정책 수립에 활용됨.
- 2025~2034년 세계 곡물 생산은 연평균 1.1% 증가할 전망이며, 이 중 0.9%p는 단위 면적당 수확량 증대에서 기인함.
  - 중간소득국가(middle-income countries)을 중심으로 기술·농기자재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밀과 옥수수의 수확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수확면적 증가율은 직전 10년 평균(0.3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연 0.14% 수준으로, 경지 확장보다는 생산성 향상이 생산량 증가를 주도함.
  - 농지 확장은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제한적이며, 특히 고소득국가에서는 경지 감소 추세가 지속됨.
- 2034년 기준 전 세계 곡물 소비 비중은 식량용 40%, 사료용 33%, 바이오연료 및 산업용이 나머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바이오연료 수요는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주도로 연 0.9% 증가할 전망으로, 비식량 수요도 곡물 수급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북미보다 소 사육두수가 3배 많지만, 단위당 생산량은 1/10 수준에 그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투자 수요가 큼.
  - 해당 지역은 국제농업개발협력의 주요 대상 지역으로 강조되며, 초지 관리, 사료 개선, 수의 서비스 확대 등의 인프라 보완이 시급
- 인도 및 동남아 국가는 2034년까지 세계 식품소비 증가의 39%를 차지하면서, 직전 10년의 32%보다 비중이 확대될 전망임. 반면 중국의 비중은 32%에서 13%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고령화 및 소비 정체로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인도·베트남·필리핀 등은 높은 경제 성장률과 도시화 확산을 바탕으로 소비 확대 전망
- 고소득국에서는 소비자 선호 변화, 정책 유도,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지방 및 당류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청량음료와 가공식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설탕 대체재 시장 성장과 함께 식품산업 구조 전환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농업·농정 동향

### ● 지속되는 폭우 및 폭염에 대응한 농업분야 피해 예방 대책 추진 | 2025-07-21, 08-0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중순 이후 폭우 및 폭염으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품목별 수급 동향 점검과 함께 현장 중심의 피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 (집중호우 피해 현황 및 대응)

- 최근 집중호우(7.16~19)로 인해 전국적으로 누적 강수량이 400mm를 넘는 지역이 속출하면서, 농작물 28,491㏊가 침수되고, 가축 157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함.
  - 주요 피해 품목은 벼·논콩 등 밭작물과 수박·멜론·쪽파 등 원예작물로, 일부 지역에서는 병해 발생과 생육 지연, 상품성 저하 등의 문제가 가시화됨.
- 농식품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 조치를 시행 중임.
  - (농작물 피해 대응) 침수지의 신속한 배수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살포, 생육 회복을 위한 영양제 공급 및 현장 기술지원 강화
  - (수급 안정 조치) 피해 품목의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도매시장과 연계하여 공급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할인 행사 등 판촉 지원 추진
  - (가축 보호) 축사 침수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의약품 긴급 지원 및 가축 이동·구호 지원 병행
  - (현장 대응체계 강화) 농협, 지자체,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취약지역 중심의 농업재해 종합대응체계 가동

#### (폭염 피해 현황 및 대응)

- 기상청에 따르면 북태평양·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며, 6~7월(7.29 기준) 평균 최고기온은 30.0℃로 역대 1위, 폭염일수는 15일로 역대 3위\*를 기록함.
  - 온열질환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7배 증가(213명→371명), 가축 133만 7천 마리 폐사 신고
  - 호우 직후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일부 농작물의 작황 부진 발생
- \*폭염일수 역대 1위 '94년 17.6일, 역대 2위 '18년 15.2일
- 농식품부는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별 대응 조치를 시행 중임.
  - (농업인 안전) 낮 시간대 작업 자제 권고, 순찰 강화(농촌진흥청, 농협, 지자체 등), 냉각조끼·쿨링타월 등 개인 냉방 장비 제공, 행복콜센터·안부전화·마을방송 활용
  - (가축 피해 대응) 축사 온도 저감을 위한 긴급 급수, 냉방장치·차광막 등 기자재 지원,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취약 농가 집중 점검
  - (농작물 관리) 생육관리협의체 운영, 영양제 살포 및 병해충 방제 지원, 살수차·물탱크·양수기 활용 긴급 급수 추진
- 농식품부는 폭우 및 폭염을 국가적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기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주력할 방침임.